

최태원 “지역발전 4대 전략으로, 미래성장 거점으로 전환”

〈대한상의 회장〉

다큐서 상의 메가 샌드박스 설명
인재육성·취업연계 교육 강조
규제 체계, 네거티브 방식 전환
해외기업 수요 고려 전략 제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가 지체되는 산업 혁신, 부족한 일자리, 저출생, 지역소멸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난제들을 풀면서 지방에도 기회의 씨앗이 움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국민에게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13일 새로운 국가 리더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연구한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고자 지난 12일 KBS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를 방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실현 방안으로 ▲인재 육성·유치 ▲인프라(AI 산업 기반 조성) ▲과

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인재 육성·유치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이 취업까지 연계되는 교육-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대학을 선택하면 졸업 후 원하는 일자리까지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프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

라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AI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수준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큐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올해 초 CES 2025에서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직접 소개해 화제가 됐던 우븐시티는 일본 시즈오카현의 옛 공장 터에 2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 중이다.

도요타는 이곳에서 자율주행, AI를 포함한 각종 첨단기술을 실험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나카무라 요시아키 센슈대학교 경제

학부 교수는 “도요타 같은 민간 기업이 참여해 이상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큰 의미”라며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인구가 모이고 그 주변 지역도 번창하는 긍정적 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국내 사업 여건은 아직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국내 최초로 소형 화물차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해 지난 2023년 텍사스에 진출했던 마스오트의 노재경 부대표는 “미국은 논리적으로 ‘이 정도 기준만 충족하면 되겠다’고 판단되면 실형이나 출시를 허용해 주지만 국내에서는 이 중·삼중으로 규제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기술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 48분 분량의 다큐 전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최태원 회장의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좌담회 영상 전체 클립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에서 별도로 볼 수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박정원 “유럽은 제2의 홈마켓… 두산밥캣 혁신기술로 시장 선도”

〈두산그룹 회장〉

독일 뮌헨서 ‘바우마’ 현장 찾아
“전동화·AI로 선도하자” 메시지
밥캣, 소형 굴착기 등 신제품 공개
무인·원격기술로 유럽 공략 박차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이 독일 건설기계 전시회 ‘바우마 2025’를 찾아 두산밥캣 부스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두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북미 다음의 유럽 시장은 두산밥캣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제2의 홈마켓이라며 “밥캣만의 혁신기술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원 회장은 지난 7일부터 13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최대 건설기계 박람회 ‘2025 바우마’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산그룹이 전했다. 두산밥캣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 박 회장은 스타벅 두산밥캣 부회장 등 경영진과 함께 시장 현황을 살피고 경쟁사들의 신기술 동향을 직접 확인했다.

두산밥캣 총매출에서 유럽의 비중은 15~20%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

다. 특히 신기술 도입과 포트폴리오 확장 등으로 최근 4년 간 유럽시장에서만 연평균 8% 성장을 지속했다. 유럽 소형 건설기계 시장은 연간 16만 대 규모로 그중 굴착기가 약 절반인 8만 대, 텔레핸들러 약 4만 대, 콤팩트

휠로더가 약 2만 대로 추정된다. 두산밥캣은 이번 행사에서 소형 굴착기 부문에서 신제품 4종을 포함한 12종의 모델을 선보이며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기존 건설, 농업을 넘어 재활용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텔레핸들러 부문에서는 전동화 제품인 ‘TL25.60e’ 콘셉트 제품을 전시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올해 34회째를 맞은 바우마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적 전시회로 글로벌 건설기계 테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미국 콘엑스포, 프랑스 인터마트와 함께 세계 3대 건설기계 전시회로 불린다. 올해 바우마에는 57개국 3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회장을 찾은 방문객은 약 60만 명으로 추산됐다. ‘전동화’와 ‘무인화’ 기술의 각축장이 된 이번 바우마에서 기업들은 전기 및 수소를 활용한 제품, 무인 및 원격 기술, AI 기반 솔루션 등 첨단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였다.

두산밥캣은 유럽시장 주력인 1~2톤급 미니굴착기를 포함한 신제품 5종을 비롯해 무인화·전동화 첨단기술을 적용한 장비 등 총 4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부스 중앙에 위치한 ‘데모 존’에서 장비 시연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조종을 선보였고, 실내 전시장에는 조종석에서 가상현실 속 작업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회장은 “건설기계 글로벌 탑티어들이 무인화, 전동화 트렌드에 맞춰 어떤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만큼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 기술을 점검하고 먼저 앞서 나가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스키드 로더와 완전 전동식 건설장비 등 ‘세계 최초’ 제품을 내놓은 혁신DNA를 바탕으로 전동화, 무인화는 물론이고 AI 적용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진옥동 “중아시아, 지속성장 기반 만들어 갈 것”

〈신한금융 회장〉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방문
현지 금융당국 면담, 협력 방안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해 금융당국 면담 등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그룹 중 최대 규모인 7589억원의 글로벌 손익을 시현했다. 특히 신한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31억원의 손익을 시현하며 2

년간 연평균 23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진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글로벌 사업의 요충지로 성장하고 있는 중아시아의 그룹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진 회장은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등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아시아 금융 산업 발전 계획을 청취하고 미래 성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진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신한카드 현지 법인 신한파이낸스와와의 합작법인인 아스터 오토(Aster Auto) 본사를

방문해 자동차 판매 사업 현황을 둘러 보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내 ‘K-컬처’ 열풍으로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내 한국 문화 관련 전시관인 ‘한국관’ 개관 기념식과 현지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전달식에도 참석했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는 중아시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교류 확대를 통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알렉세이 바칼(Alexey Bakal) 아스터 그룹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